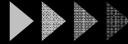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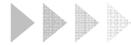


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

전기용품 안전기준(KC)과 KS표준의 일치화



2015. 05.



KATS

목 차



- 1 KC-KS 일치화의 목적과 필요성
- 2 전기용품 안전기준(KC) 현황
- 3 전기용품 안전기준(KC) 일치화 방향
- 4 KC-KS 기준의 일치화 현황
- 5 KC-KS 기준의 기대 효과
- 6 KC-KS 향후 계획
- 7 기타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계획



1-1 현황

□ 우리나라의 표준은 산업표준(KS)과 각 부처 기술기준으로 운용



1-1 현황

- (표준-기술기준 부조화) 동일한 제품에 상이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업계혼란 초래
- (중복 인증) 부조화된 표준 및 기술기준이 인증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, 인증시험 중복문제 등을 발생시켜 기업에 이중부담
 - * LED 조명제품 : 전기 안전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KS인증

【 해외 사례 】

- ▷ 외국은 기술기준에서 표준 인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표준-기술기준의 이원화 방지
 - (EU) New Approach에서 유럽위원회가 제정하는 기술기준(Directives)은 일반적인 요구사항만을 규정하고 각 제품의 기술사양(표준) 등은 유럽표준화기관(CEN / CENELEC)에 위임
 - (미국) 국가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 정부의 기술기준은 표준개발기관에 의해 개발된 표준을 준용

KATS 1. 안전기준(KC)-KS표준 일치화의 목적과 필요성 

1-2 필요성

- 기술기준과 KS표준이 동일한 국제표준을 채택하였으나 채택한 시기에 따라 판 번(Version)이 다름
- 전기용품안전인증, KS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중복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
↓

- 전기용품안전기준과 KS 표준을 비교, 분석하여 일치 추진

KATS 2. 전기용품 안전기준(KC)현황 

안전기준 및 KS 현황 ('14.05.21)

- 국제표준(IEC) 6,000종 중 전기용품 안전기준(KC)은 안전에 대한 표준 731종을 채택하고 있으며, KS 표준은 3,102종을 채택
- 국제표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안전기준 45종 운영

안전기준-KS Version 비교			기준 수
①	국제표준 부합화	안전기준과 KS 표준이 일치	387 종
②		안전기준보다 KS 표준의 버전이 높음	124 종
③		안전기준이 KS 표준보다 버전이 높음	32 종
④		국제표준은 있으나 KS가 없음	100 종
⑤		국제표준과 KS 폐지	88 종
⑥	KC 고유기준	국제표준이 없는 국내 고유기준	45 종
계			총 776 종

▶▶▶▶

KATS 3. 전기용품 안전기준(KC) 일치화 방향 

일치화의 방향

- ① 안전기준과 KS표준이 일치
 - ☞ KS표준을 인용·채택하고, 안전기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
- ② KS표준이 안전기준보다 버전이 높음
 - ☞ KS표준을 인용·채택하고, 기존 안전기준은 일정 기간 병행 적용
- ③ 안전기준이 KS표준보다 버전이 높음
 - ☞ KS 표준 개정
- ④ 국제표준은 있으나 KS 표준이 없는 안전기준
 - ☞ KC 기준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 후 KS 표준 제정 추진
- ⑤ 국제표준과 KS가 폐지된 안전기준
 - ☞ 규격의 실효성 분석 후 안전기준 폐지
- ⑥ 국제표준이 없는 국내 고유기준
 - ☞ 규격의 실효성 분석 후 KS 표준 제정 요청

▶▶▶▶

KATS 4. KC-KS 기준의 일치화 추진현황 

일치화 추진 결과

- 안전기준과 KS표준 일치
 - ☞ 387종에 대해 KS 표준 인용·채택하는 개정고시 완료
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421호 : 2014.09.03)
- KS표준이 안전기준보다 버전이 높음
 - ☞ 124종에 대해 KS표준 인용·채택하고 기존 안전기준에 대해 1년 병행
기간을 설정하여 개정고시 완료
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421호 : 2014.09.03)
- 안전기준이 KS보다 버전이 높음
 - ☞ 32종에 대해 KS 개정 실시(2014년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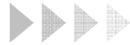


4. KC-KS 기준의 일치화 추진현황



일치화 추진 결과

- 국제표준은 있으나, KS가 없는 안전기준
 - ☞ 100종에 대해 KS 제정 추진(2014년말)
- 국제표준과 KS가 없는 안전기준
 - ☞ 88종의 안전기준 폐지고시 완료
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421호 : 2014.09.03)
- 국제표준이 없는 우리나라 고유 안전기준
 - ☞ 고유기준 중 2종 폐지 및 43종 현행유지
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-0421호 : 2014.09.03)



5. KC-KS 일치화 기대 효과



기대 효과

- 동일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KS표준 불일치로 인한 업계 혼선 제거
- 안전기준과 KS표준의 일치화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

KATS 6. 향후 계획 

□ 개정고시한 안전기준에 대한 접근성 향상

- 안전기준과 KS표준이 일치하여 KS표준을 인용·채택한 387종과 KS표준이 안전기준보다 버전이 높아 KS표준을 인용·채택한 124 종에 대해, 해당 KS 본문을 안전기준에 삽입하여 개정고시할 예정임

	
KC	KC
60027-1(작업전)	60027-1(작업후)

KATS 7. 기타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계획 

1-1 전기기기

□ 전기기기 안전기준 개정 계획

- (전기온수매트) 안전기준(K10018(매트), K10019(보일러)) 통합, 저온화상 - 주의사항 추가 및 낙하시험 등 온수순환시험 등 보완 (2015.10월)
- (전기매트) 안전기준(K60335-2-17)에는 저온화상 주의사항 추가 등 타이머(8시간 후 자동 차단) 의무화
* 국제표준화(IEC 60335-2-17)에 따라 면상발열체 상용전압 추가 (2015.11월)
- (전기찜질기) 종류 추가 안전기준(K10020) 강화 (2015.10월)
- 면상발열체 소재 안전기준 제정 (2016년 이후 시행)



7. 기타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계획



1-2 조명 및 전지

- 조명/전지 안전기준 개정 계획
 - LED램프 안전기준(K10023 등 3종) 개정
 - * 광속유지율 2,000시간 삭제 추진(2015. 9월)
 - 리튬2차전지 안전기준(KC62131) 개정
 - * 예고(2015. 4월완료), 최종고시 (2015. 7월)

1-3 누전차단기

- 자동복구형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개정 계획
 -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(K10023) 개정
 - * 설치장소 삭제 추진(2015. 6월)



감사합니다